

새로운 관광열차 ‘36+3’ 2020년 가을 운행 개시



2020년 가을, JR 큐슈에서는 약 3년 반 만에 새로운 관광열차가 데뷔합니다. 콘셉트는 ‘큐슈의 모든 것이 가득 담긴 “달리는 큐슈”라 할 수 있는 열차’. 기존의 관광열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열차명 36+3

세계에서 36번째로 큰 섬, 큐슈의 모든 현을 달리는 ‘36+3’은 큐슈를 즐기는 35가지 에피소드를 싣고 5개의 루트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디 모든 루트를 즐겨 보시고, 다음엔 고객께서 직접 “36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열차에 ‘36’가지의 에피소드와 ‘고객,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의 ‘3’을 플러스해서 ‘39(산큐!)’=‘감사’의 고리를 넓혀 가겠습니다.

※ ‘39’와 ‘Thank you’는 일본어 발음이 동일합니다.

콘셉트

큐슈에는 맛있는 음식, 풍부한 자연, 역사,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정신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새로운 관광열차는 이러한 큐슈의 매력을 가득 담고 큐슈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달립니다.

차량

787계열 전철(6량 편성)
전 좌석 그린차량
정원 약 10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787 계열 전철은 1992년에 후쿠오카와 카고시마를 잇는 ‘츠바메’로 등장하여,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 ‘브루넬 상’을 수상한 JR 큐슈의 대표적인 전철입니다. 현재도 ‘카모메’, ‘니치린’으로 큐슈 각지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번 전철에서는 외관과 내관을 리뉴얼하여, 특색 있는 전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Design & Illustration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운행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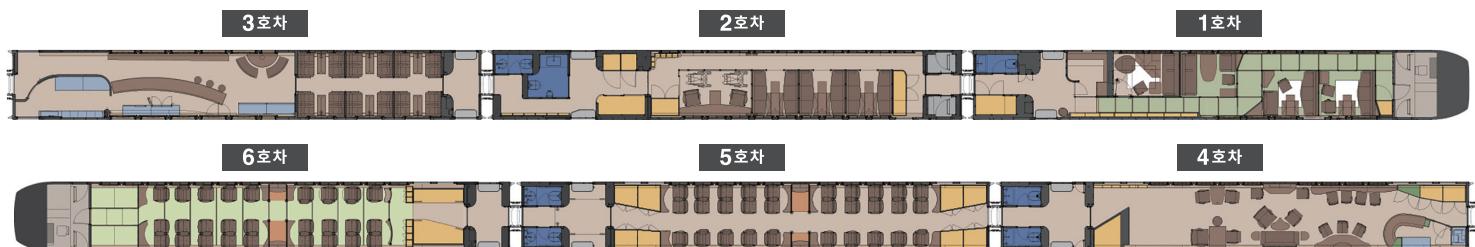
낮 시간대에 운행하며, 숙박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의 승하차는 지도에 기재된 각 역(모지코역, 야쓰시로역, 센다이역 제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카타→ку마모토→카고시마 추오(히사쓰 오렌지 철도선)
금요일	카고시마 추오→미야자키
토요일	미야자키공항·미야자키→오오이타·벳푸
일요일	오오이타·벳푸→(모지코)→코쿠라→하카타
월요일	하카타→사가→나가사키 / 나가사키→사가→하카타



차량 구조

1호차부터 3호차까지는 개인실, 5호차, 6호차는 좌석 차량입니다. 3호차에는 음료와 간식, 상품을 판매하는 스낵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호차는 살롱 스페이스로, 차량 내 체험과 이벤트 등에 활용됩니다.



1호차 그린차량 개인실 [정원 4명/4실]

2호차 그린차량 개인실 [정원 6명/3실]

3호차 그린차량 개인실 [정원 2명/6실]、스낵바 서비스

4호차 살롱 스페이스

5호차 그린차량 [30좌석]

6호차 그린차량 [27좌석]

총 103 개 좌석 예정

※판매가격과 판매조건은 검토중입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이미지



Design & Illustration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일러스트는 완성 예상도입니다.



Design & Illustration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일러스트는 완성 예상도입니다.

1호차 그린차량 개인실 [정원 4명/4실]

1호차의 개인실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을 지향합니다. 클래식한 분위기와 차분한 색조로 꾸며진 차량입니다.



Design & Illustration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일러스트는 완성 예상도입니다.

4호차 살롱 스페이스

4호차의 살롱 스페이스는 손님 여러분을 위한 공용 스페이스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밖에, 객실 승무원과 손님이 함께 즐기는 체험 메뉴와 이벤트도 검토 중입니다.

3호차 스낵바 서비스

3호차의 스낵바 서비스에서는 “큐슈”의 매력적인 음료,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카운터를 설치한 근대적인 디자인입니다.

‘36+3’이 제공하는 여행 이미지

목요일

후쿠오카

오전 중 후쿠오카 출발

열차 내에서 보내는 시간(창밖 풍경 감상, 스낵 서비스 등)
도중 역 정차, 플랫폼 매점 등

куамото

점심시간

창밖을 내다보면서 즐기는 점심 식사
살롱 스페이스에서 체험하는 ‘큐슈의 차’ 등

카고시마

오후

카고시마 도착